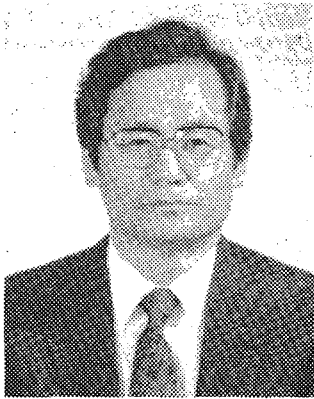


“環境에 대한 汚染은 쉬워도 淨化는 어렵다”

— 世界環境의 날에 부쳐 —



釜山大環境문제연구소 소장
工博 김 동 윤

「단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전하고, 자연 환경 파괴와 각종 공해로부터 인류를 구제하자는 목적에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 세계 1백 14개국에서 1천 2백명의 대표가 모여 UN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인간환경개선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날을 세계 환경의 날로 부르고 있다.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각종 오염의 피해가 하나뿐인 지구를 병들

게 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여 각종 공해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각종 공해가 자기가 버린 자기 주위나 자기 나라만에 한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기류의 흐름에 의한 대기확산이나 폐수의 바다내의 확산등으로 이웃나라 및 지구의 지상과 해수를 알게 모르게 오염을 가중시켜 공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 산성비에 의한 유럽 여러 나라의 막대한 산림 피해라든지 작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사건에 의한 동부 여러나라 및 세계의 방사능 오염의 낙진사건, 탄산가스에 의한 비닐그린하우스 영향으로 생성된 이상기온상승, 남극 오존층 파괴로 인한 태양광선의 방사능 누출 사건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지구의 재앙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두렵게 생각되는 바이다.

그리고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방류된 폐수 오염도 결국 호수나 바다로 유입되어 각종 생태계를 파괴하고 먹이 사슬 과정에 의하여 우리들 음식으로 유입되어 인체의 각종 기관에 축적되어서 오늘날 각종 성인병인 공해병을 알게 모르게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폐수에 의한 오염이 방류된 그 지역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내의 오염된 각종 어류의 이동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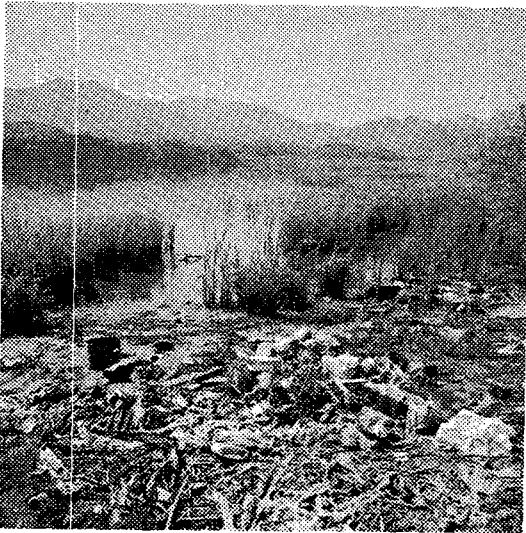
“

「단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전하고, 자연환경 파괴와 각종 공해로 부터 인류를 구제하자는 목적에서 「인간환경개선선언」이 채택되었다

”

오염물 확산에 의하여 세계 바다를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다.

북극이나 남극에서 잡힌 고기에도 간혹 납성분이 발견되어 진다고 하니, 각종 오염의 피해는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임으로, 국제적으로 서로 상호 협조하여 공해추방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세계환경의 날을 선포한 것은 아주 뜻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수질 오염



사건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유기수은에 의한 미나마타 병과 카드뮴에 의한 이타이이타이 병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질오염 사건으로 오늘날 세계적인 수질 오염사건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미나마타 병은 지각, 청력, 언어장애 등의 중추 신경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며, 이타이이

타이 병은 체내의 칼슘 불균형으로 골연화증을 일으켜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병이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로부터 동쪽으로 약 10 km 떨어진 Love Cannal 마을의 주택가에 폐기물을 단순 매립하여 20년이 경과한 후 땅속의 유독가스에 의한 오염으로 사산아, 기형아, 미진아등을 낳게 하여 전 세대를 긴급이주시킨 충격적인 사건은 대표적인 폐기물에 의한 오염 사건이다.

상기의 각종 오염 사건도 많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수시로 큰 공해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일단 오염되면, 그 오염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광역화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건설이나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아름다운 자연환경, 건강한 인류생활에서 값진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가 하면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각종 공장폐수와 산업폐기물 등으로 인간의 건강한 생활에 필수적인 맑은 공기, 물, 그리고 깨끗한 토양에 크게 오염되어 인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차륜의 배기가스와 영농에 있어 각종 농약의 과다사용은 그와 같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공업화가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고 원시 생활로 돌아가라는 외침까지 나오고 있다.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무서운 공해병과 직업병 등 모두 인간의 무정견한 작위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도 인간이고, 오염을 개선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과 오염의 피해인식의 주지가 가장 중요하다

”

자연에 대한 파괴는 쉬워도 그 회복은 어렵다. 환경에 대한 오염은 쉬워도 그 정화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향상을 위한 인간의 경제 성장 노력이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오히려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된다면 말 그대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성장정책만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공해와 환경문제를 소홀하게 다룬 점이 없지 않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과오이다. 꾸준히 정부에서도 환경청 설치운영을 적극화 하여 왔고, 작년의 6개 환경지청 개설등으로 환경개선에 많은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과 같이 환경청 체제를 보다 더 강력한 기구로 조직하고, 보다 더 많은 환경보전비가 투자 되어야겠다. 각국의 GNP에 대한 환경보전비는 미국이 1%, 일본이 2%인데 우리나라는 훨씬 미달인 0.3%정도이다. 그리고 범 국민적인 참여가 없이는 환경개선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걱정이지만 80년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철강공업 공해방지비는 설비투자액의 17%, 일본이 19.9%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77년부터 99년까지(경공업의 경우) 총 투자액의 5%로 추정되고 있다.

공해방지와 병행하여 산업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공해방지 계획 없이 고도성장만 추구한

후 공해방지 시설투자 하는것 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란 것이 선진국가의 경제 발전 과정에 서 많이 볼 수 있다.

환경지청 개설로 지역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공해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그 지방의 관계 당국에 일임하고, 연구용



역문제는 그 지방의 대학 연구소등에 맡겨 해결하도록 장려하면, 중앙에서 왔다 갔다하는 교통비와 기타 경비의 소비가 억제되고, 애항심이나 지연관계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기술 및 정보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면에서 환경정책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문제 해결은 한사람, 두사람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각자의 협조와 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용 및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기구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활동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
 단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잘 보호하여 물려주어야 한다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도 인간이고,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것도 인간인데 무엇보다 인류 각자의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과 오염의 피해인식,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양심적이고 환경오염 방비에 적극적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겠으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까지 환경과목을 필수교양 과목으로 설정하여, 폭넓게 공해방지의 필요성을 범국민적으로 계몽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자연보호날에 부산시에서 자연보호운동회 관계로 관계관과 부산시민 약 2000명을 범어사 입구 주차장에 모아 놓고 자연보호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본인도 부산시 새마을과의 요청으로 참가하여 약 20분간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어, 시민들의 자연보호 운동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다.

부산시장님과 관계관의 연설이 끝난후, 부산시장님을 위시하여 2000여명 시민들이 범어사 뒤의 산골짜기를 따라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면서 금정산 북문지점까지 가게 되었는데, 약 반경도의 사람들만 쓰레기를 주워서 비닐 보자기에 넣고 그외 사람들은 잠담하면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국민들의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를 알게 되었다.

신문이나 TV에서 거의 매일 오염문제가 취급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발표되고 있고, 더구나 자연보호운동을 위해서 참가한 시민들임에도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심각한 경험을 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무엇인가 교육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계몽활동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 되어진다.

만약에 2000여명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쓰레기 줍는데 참여하였다면, 그 골짜기는 더욱더 깨끗해 질 것이고,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를 하려는 마음 가짐이 강하게 형성되었을때 그 정신이 국가전체 환경개선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따라서 각자가 환경보호에 적극적이면, 국토의 자연환경은 아름답게 보전될 것이고 국민과 더불어 각 국가가 환경보전에 적극적이면, 단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15회째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도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으나,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음으로 보다 더 환경보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단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잘 보호하여 물려주어야 하겠다. *